[보도자료]

세계최대영화**-**음악**-IT** 축제 **SXSW** 본격소개서**,** 전자책으로발간

• 정보라 IT 전문기자의 ‘스타트업을 위한 SXSW 견문록’ 출간

•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 전부터 화제를 모은 인기 전자책

한국인에겐 상대적으로 낯설지만, 세계인들에겐 한 자리에서 헐리웃 스타와 인기 팝가수, IT 업계의 거물까지 볼 수 있는 유일한 행사로 유명한 SXSW(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2016 SXSW 현장을 담은 생생한 보고서가 25일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제목은 ‘스타트업을 위한 SXSW 견문록’, 모바일 콘텐츠 전문기업 퍼블리(publy.co)가 펴내고 1등 전자책서점 리디북스(ridibooks.com)가 제작 및 유통을 맡았다. 5년 이상 국내외 정보기술(IT) 산업을 취재해 온 정보라 IT 전문기자가 현장에서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발로 뛰어 써내려간 현장 리포트다.

SXSW는 한국에서는 다소 덜 알려졌지만 1987년 첫 행사가 개최된 이래 30년 간 꾸준히 성장해 온 대규모 행사다. 처음에는 음악가들의 음악 축제였지만 1994년 이래 영화사와 IT 회사들까지 참여하면서 미래의 문화 트렌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까지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이 책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의 꿈에 다가서고자 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노하우, SXSW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일본과 다양한 외국 기업들의 모습, 지금 뜨고 있는 다음 트렌드를 주도할 미국 IT 기업들의 현상 등이 다채롭게 소개된다. 특히 처음 이 행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초행자를 위한 팁’이라거나 일본 기업들이 모인 ‘재팬하우스’ 집중 소개 등은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정보다.

퍼블리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현장 리포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현장 리포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리디북스에서 5월 한 달 동안 독점 판매되며 향후 다양한 인터넷 서점을 통해 전자책으로 판매될 계획이다. 정가 7000원.

문의:

박소령 PUBLY CEO spark@publy.co | 070-4641-6880

김상훈 리디북스 홍보실장 sanghoon.kim@ridi.com | 010-2719-9631